

한국방위산업학회 출범에 부쳐.....

편집인 칼럼



● 羅 柄 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한국 방위산업학회의 출범을 크게 축하합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 70년대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확장과 미국의 안보지원 태세 약화라는 시대적인 배경속에서, 자주국방의 절대적 필요성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맞물려 태동하였으며 지난 20년간 無에서 有를 창출한다는 신념과 부단한 노력속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초 재래식무기의 국산장비 대치, 개발을 목표로 한 1단계 방위산업 목표는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만 정부와 업체, 연구기관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80년대 중반에 이미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으며 기간중 방위산업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중화학공업 분야를 비롯한 국내 민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이후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정부예산수요의 점증과 국내소요물량의 한계 해외수출의 制約 및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기반의 취약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방산업체의 가동율은 民需제품의 83%선에 크게 못미치는 56%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방산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최근 국제적인 탈냉전과 東西간 화해추세속에 북한의 對內·外 유화모질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통일이 될 것 같은 환상속에서 국방예산의 감축이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 안보상황을 직시(直視)해보면 — 현재 우리는 안보의 직접적 위협인 북한에 비해 전력상 월등한 열세에 있으며 북한의 공세전력 증강과 기습공격능력 강화정책은 추호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환기에 出帆한 「방위산업학회」는 안보정책 수립과 기술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를 경악시키는 것은——
 북한이 화학전과 생물학전을 치를수 있는 전력을 구비한데 이어
 최근에는 移動 스킨드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자살특공용 소형 잠수정 50척을 東西海에 작전배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한반도 쏘지역을 사정권 안에 넣는,
 一名 “노동1호”라 불리우는 사정거리 1천km의
 Scud-D 유도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소형 원자폭탄을 제조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東北亞 의 화약고”로 불리는 우리의 한반도는
 걸프전 이후 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위협은 비단 북한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3大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중국, 소련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들 열강들은 모두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전력(前歷)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장차 통일이후에도 세계 최강의 4개국에 둘러싸인
 상대적인 약소국을 면할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될 우리로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자위력의 확보가 절대 절명의 과업이며
 통일한국이 독립주권국가로서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을 담당하는데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복지보장책은 자주국방에 있으며
 자주국방은 戰力건설을 전제로 한 방위산업 역량 여하(如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장차전에 대비한 고도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전제로 한
 방위산업의 재도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방위산업도 국내 소요충족 위주에서 해외진출을 통한 수요창출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을 기초로 하여 현대전 개념에 부합되는 첨단기술 개발로
 장차 통일이후를 대비한 자주국방체제 구축에 기여하면서
 중화학공업 선도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탄생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출범하게 된 우리 “방위산업학회”는
 産·學·研·官 各계 인사들의 여론수렴의 광장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정책 수립과 기술개발 및 방위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학회창립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관계인사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